



| | |
|--------------|-----------------------------|
| 제목 | 생명 존중을 위한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정의(正義) |
| 발행언어 | 한국어 |
| 발행처 | 한국구약학회 |
| 발행일 | 2003. 10. 15. |
| 저자 | 이종근 |
| 출판국가 | 대한민국 |
| 페이지수 | 261-297 |
| ISBN 또는 ISSN | 1229-0521 |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최초 인류 문명인 수메르의 대표적 법들인 우르 남무 법과 리피트-이쉬타르 법들에 나타난 미샤룸의 내용들과 왕위 선전과 왕정의 선정 구호들, 그리고 법과 정의 구현과 생명존중을 위한 공공선의 조항들 등을 고대 근동학과 히브리 성서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대표적 개념과 제도가 바로 미샤룸 법인데, 히브리 성서에서는 법과 정의라고 말해지며 회년제도가 이 모티브에 근접한다고 한다. 미샤룸이란 고대 바벨론의 사회정의 제도를 가리킨다.

우르 남무 법은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 제3제국의 창시자인 우르 남무 왕 또는 그의 아들 술기가 만든 것으로 추측되며, 리피트-이쉬타르 법은 중앙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인 이신 제11왕국의 5대 왕 리피트-이쉬타르가 편찬한 법이라고 한다. 두 법 모두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전형적인 법형식인 결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의법이란 “어떤 사람이...한다면”이라는 조건절과 “...한다”는 결과절로 구성된 법조항이다. 두 법은 신들이 왕을 백성들 가운데서 택했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왕위 선전으로 시작된다. 두 법은 노예해방, 약자보호, 복리민복, 사법정의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두 법이 당시의 사회질서의 유지와 기득권 보호의 목적으로 왕들이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이 두 법은 기득권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